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購讀料 一個月先金壹圓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論說 世界의 新形勢(下) ─日本의 飛躍的膨脹─

一

米國은 戰爭의 結果로 하야 聯合國에 對하야 戰債總額約百億四千五百萬弗의 債權을 가지고 잇는데 英國의 債務는 約十億磅 卽 五十億弗이요 佛國의 債務는 約四十億弗에 達하고 그 外에는 七個國이 또한 米國의 債務者이요 獨逸이 近來에 와서 또한 米國으로부터 盛大히 資本을 輸入하게 되엿다 그 뿐아니라 米國은 亞細亞方面에 잇서서 또 南米方面에 잇서서 資本을 投下하야 여러 가지 施設이 잇다 이여가티하야 米國은 지금 그 金力으로써 全世界를 貫東하고 잇는 觀이 잇다 이러한데 또 加奈陀와 가튼 大領土를 가지게 되다 하면 그는 勿論 現在 以上의 勢力을 가지게 될 것이다

二

米國이 이와 가티 膨脹하는데 日本이 또한 急速히 擡頭하려고 하는 形勢를 우리가 看過하여서는 아니되겟다 日本이 滿洲方面에 잇서서 勢力을 扶植하여 온 것은 말할 必要도 업는 것이지마는 最近에 와서는 中國의 關稅會議를 機會로 하야 中國民의 歡心을 사기에 努力하고 또 亞細亞民族大會라 하는 것을 計劃하야 亞細亞의 諸民族을 弄絡하려고 하는 手段은 島國의 彼等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업다 勿論 그들의 手段을 解剖하여 보면 곳 그 眞相을 發見하겟지마는 적어도 그것이 亞細亞民族의 一部分의 心裡에 어느 印象을 줄 수 잇는 것이다 印度 土耳其等 諸民族은 白人의 虐待를 바더 온지 이미 오랜지라 門前의 虎를 쫏기 爲하야 뒷문의 이리를 迎接하려고 하는 態度에 나오려고 할지도 알 수 업다 이러한 機會에 잇서서 日本側에서 亞細亞橫斷鐵道의 計劃을 提出하고 亞細亞通信機關을 完備하야 交通을 便宜케 하고 亞細亞興業株式會社를 設立하야 五六億圓의 資金을 募集하려 하고 金融機關을 敏速하며 各民族의 使節을 交換하자 하니 이것은 日本의 勢力發展上에 一新時期를 劃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업다

三

奉天으로부터 또는 山東의 海州로부터 土耳其에 至하는 亞細亞橫斷鐵道를 二三十年間에 完成하고 約五六億圓 程度의 亞細亞興業株式會社를 三四年間에 準備하겟다 하니 그 計劃이 자못 非常한 바 잇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日本側의 提案이 同大會에 잇서서 一個 議論이라 하겟스나 구나 그 計劃 自體에 對하여는 別로 異議될 것은 업겟고 다만 그 實行力의 如何에 잇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업다 그러나 日本側의 代表者로 보면 日本의 各政黨을 網羅하엿고 그 外에도 또 有力한 사람들을 參加케 하엿스니 그것이 全혀 架空的 想定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何如間 이와 가티 하야 지금 日本이 더욱 그 爪牙를 버두루려고 하는 것은 事實이다

四

이와 가티 보아 오면 太平洋의 彼方에서 米國이 이러나고 太平洋의 此方에서 日本이 할부로 그 服膨慾을 버두루려고 한다 그리하야 太平洋을 隔하야 兩國이 서로 猛烈히 反目하게 되엿다 世界形勢를 通觀하면 日米의 兩勢力이 對峙하게 되고 英國은 그 대로 大洋洲, 新西蘭, 南阿等 殖民地를 가지고 잇서 一勢力을 出現하겟고 歐洲大陸에 잇서서 獨佛이 서로 反目하지마는 結局에로는 一致하야 他勢力에 抗爭할 수 잇겟고 歐亞의 北方에 잇서서 사람의 心膽을 서늘하게 하는 勞農露西亞가 잇서서 出沒自在하는 地位에 잇게 될 것이다 이와 가티 하야 現今世界에는 五大勢力의 互相錯雜한 바 잇슴을 보겟다 結局에 잇서서는 「소베트」聯合對非聯合의 抗爭이 되겟스나 그 決勝戰 外지에 가기 前에 諸勢力間의 爭鬪를 또한 看過할 수 업겟다(完)

激烈한 演說 革命歌高唱 佛國官吏의 增俸示威運動光景

(巴里廿八日發) 佛蘭西下院門前에 在한 各省雇傭人官公吏員의 俸給引上要求示威運動에는 多數의 參加者가 有하야 先般政府에서 行한 增給은 今日과 如히 貨幣價格下落의 際에 處한 生活費로 不充分하다는 抗議의 口號를 하얏는데 當局은 巴里合市의 警察로부터 非番巡查를 召集하야 示威運動을 解散시키엇스나 群衆은 一團이 되야 革命歌 「인터내쇼날」을 高唱하얏스며 共產黨員若干은 激越한 煽動演說을 하야 政府攻擊을 한 後 退散하얏더라

佛總理政綱朗讀 前代未聞의 喧騷와 空前의 喝采中에

(巴里二十八日發) 佛蘭西下院에서 新國務總理兼財政長官「포앙카레」氏는 政綱을 朗讀하야 佛蘭西는 其債務還濟를 急務하나 爲先 財政的 危機를 終滅하는 것이 緊要之事이며 佛蘭西의 價權國도 무엇보다 먼저 佛貨價値의 危機를 업새는 것이 必要할 줄로 信한다 述하고 다시 下院은 此際從來의 經緯를 捨하야 互讓의 精神으로써 貨幣의 價格과 國庫의 獨立과 債務의 均衡을 脅威할 危險을 除去함이 必要하다 紹마하얏는데 總理의 政綱朗讀中 左翼으로부터는 頻頻히 妨害가 起하야 其騷音은 前代未聞을 極하얏스며 朗讀이 終了하자 社會黨, 共產黨, 以外의 左翼中央右翼으로부터 未會有의 拍手가 盛起하얏더라

反米示威에 對한 米大使의 好意的警告

(巴里二十七日發) 佛蘭北駐箚亞米利加大使는 非公式으로 佛蘭西에 在한 米的示威는 佛蘭西에 有害일 뿐 아니라 外國遊覽客에게 恐慌을 품게 함에 不過하다고 好意的 注告를 하얏더라

滯燕國會議員等 政府에 歲費支拂要求

(京北二十七日發) 各地로부터 上京한 國會議員은 生活問題의 脅威를 밧기에 至하야 百數十名의 聯盟으로 議員歲費의 支拂을 政府에 要求하기로 하얏더라

中央執行委員會 政治部員『제』氏罷免

(몰도二十七日發) 露西亞共產黨中央執行委員會의 決議에 基하야 『케노비에푸』氏는 中央執行委員會政治部員의 職을 罷免當하엿는데 此는 『추러키』의 擡頭를 制禦하고 資本主義諸國에 對한 露西亞의 態度가 妥協的인 것을 意味하는 것이더라

蔣廣軍總司令 機關銃隊引率後 廿七日韶關에 出發

(東京電) 某處着電=廣東革命軍總司令 蔣介石氏는 部下二十名과 共히 機關銃隊를 率하고 二十七日朝 韶關에 向하야 出發하엿는데 氏는 當分 韶關에 滯在하야 全軍을 指揮할 터이며 不在中은 譚延闓가 治安維持의 任에 當할 터이더라

閣議決定事項

(東京電) 二十八日의 定例閣議決定事項은 左와 如하더라

一、大正十年勅令第八十九號 朝鮮臺灣關東州에 在한 官立公立學校敎官으로서 一年現役에 服하는 者의 給與에 關한 件中改正의 件

一、鐵道의 國際制度에 關한 條約及國際署名議定書改更의 國際制度에 關한 條約의 件

一、日本과『체코스로바카』通商航海條約의 件

一、第二豫備金支出의 件

▲一萬二千八百六十圓 瑞興警察署廳舍其他災害復舊及新營費

▲一萬二千四百六十八圓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廳舍其他水害復舊新營及應急費

尉官以下優待

(東京電) 陸軍에서는 下階級幹部의 待遇改善에 對하야 講究中이던바 大體 左와 如히 待遇改善을 하기로 되엿더라

一、下士俸給을 一割增加

一、憲兵의 尉官特히 下士의 待遇를 良好하게 할 事

一、除附將校(尉官에 限함)에게 二年一次式軍服을 給與할 事

東京에 新設 智識階級紹介所

(東京電) 智識階級의 失業者救濟를 爲하야 東京市社會局에서는 別로히 職業紹介所를 新設할 計劃을 樹立하고 目下新設紹介所에 就職口를 求하려 오는 求職者의 學歷經歷其他詳細를 調查中인바 近調查의 完了를 기다려 豫算을 計上하야 市會에 提案하기로 되엿는데 爲先 市門에 一個所를 新設하고 漸次增設할 方針이더라

馮氏先祖墓 破壞發掘折木

(北京二十八日發) 保定에 在한 馮玉祥의 先祖墓가 破壞되야 大理石周圍는 倒壞되고 樹木은 亂折되얏스며 墓石도 破碎되얏슬 뿐 아니라 槍劍으로 지켜 發掘되엿드다 는데 犯人은 軍人인 듯하나 當局은 不關의 態度를 取한다 더라

不正問題續出하는 安岳郡當局 免職引責辭職等으로 安岳郡當局波瀾續出

黃海道安岳郡廳은 近日에 와서 郡職員의 免職或은 引責辭職等으로 實로 問題가 만타는바 數個月前에는 郡屬某가 賭博事件으로 免職을 當한 일이 잇스며 其後는 公金紛失事件으로 會計某가 免職을 當한 일이 잇스며 또 畜產技手某는 公金消費事件으로 亦是免職된 事實이 잇스며 또 雇員某는 林野貸付事件으로 辭職을 하게 되는 近日에 와서는 郡屬金某와 李某가 引責免職을 提出하엿다는바 此事件도 亦是 林野不正貸付事件의 關係이라는바 郡當局은 勿論道當局에서는 頭痛中이라 더라(安岳)

全北青年聯盟 定期總會 無事閉幕

全北青年聯盟에서는 去二十五日에 全州에서 過般國葬으로 延期되엿던 第一回定期大會를 開催한다 함은 旣報한 바와 갓거니와 豫定과 가티 지는 二十五日下午三時부터 全州青年會館內에서 出席團體十七個團體代議員二十七人本部委員及評議員의 出席과 多數한 傍聽裡에 庶務委員宋柱祥氏의 開會宣言으로 드되여 裵憲君의 鄭重한 開會辭가 有한 後 各地로부터 온 祝文祝電朗讀과 資格審查議錄朗讀과 經過報告를 마치고 議事에 入하야 規約改正案을 通過하고 銓衡委員 裵憲 李龍基 金杏奎 林榮澤 崔成龍 五君의 銓衡으로 執行委員及檢查委員을 選擧하고 臨時執行部는 裵憲 宋柱祥 兩君을 選擧한 後 今年度豫算案은 委員會에 一任하고 討議案은 前委員會의 提案을 接受하야 宋柱祥君의 說明한 後 一瀉千里의 勢로 重要事項數十件을 決議한 後 大會를 圓滿히 마치고 同七時三十分에 萬歲三唱으로써 閉會하엿다더라(全州)

△決議事項

一、青年運動에 關한 件
(一) 細胞團體組織에 關한 一般原則(以下細目畧)
(二) 都市勞働青年團體
(三) 農民青年團體
(四) 智識階級青年團體
(五) 學生青年團體

二、郡聯盟에 關한 件
(一) 各郡聯盟은 一地方一聯盟主義를 採用할 것
(二) 各郡聯盟은 全北青年聯盟의 地方機關으로 認할 것
(三) 郡聯盟에 關한 規定을 制定할 것

三、財政에 關한 件(項目畧)

四、敎養에 關한 件
(一) 民衆敎養
가、現下朝鮮民衆의 敎養은 가장 主要한 것이며 同時에 가장 急務로 認함
나、各青年團體는 巡迴圖文敎授班을 組織하야 婦女及其他의 文字를 解치 못하는 者를 敎授할 것(細目畧)
(二) 自體敎養에 關한 件
가、一般自然科學及社會科學을 敎養의 科目으로 하되 自然科學에 잇서서는 生物學, 進化論, 地理學等을 主要로 하고 社會科學에 잇서서는 史學, 政治學, 法律學, 社會學, 經濟學等을 主要로 하며 特히 資本主義生滅에 關한 法과 朝鮮의 現狀及世界政情에 通曉케 할 것
나、細胞團體에는 반드시 研究班을 置하야 定期的으로 研究會를 開하되 各會員은 義務로 出席할 것

五、當面問題에 關한 件
(一) 朝鮮社會團體中央協議會에 關한 件(細目畧)
(三) 在日本相愛會에 關한 件
가、絕對로 撲滅함을 期함
(四) 全南松汀勞組對親龍契紛糾事件
가、調查員二人을 派遣하야 事件의 眞相을 調查하는 同時에 失業同件을 慰問하며 各細胞團體로부터 同情品을 募集하야 發表하기로 하다
調查員 裵憲 李龍基
(五) 裡里青年會關係의 市民對衡平社紛糾에 關한 件
(六) 巡迴講演에 關한 件 (以上二項執行委員會에 一任)

△新任執行委員
李龍基、裵憲敎、李平權、裵憲、金一、林得淳、李在必、李平吉、鄭乙、崔成龍、崔宗奎、金杏奎、蔡奎獻、李泰雨、崔峻壽

△檢查委員
林得龍、金匡宇、李泰奎

中南少年團 革新總會 新綱領을 樹立

慶南密陽中南少年團에서는 該會의 創立以來로 運動上諸方針과 어린이의 敎養이 組織的으로 進行되지 못하엿슴을 痛歎하고 時代의 思潮에 適應한 新氣運을 促進하며 敎養과 運動에 더욱 熱中코자 去二十五日 革新總會를 開催하고 綱領及規約을 通過한 後 아래와 가튼 綱領과 任員을 選擧하엿다 더라(密陽)

◇綱領
一、우리는 智能을 培養하며 身體를 鍛鍊하자
一、우리는 人種의 區別을 撤廢하며 個性의 完成을 圖하자
一、우리는 正義的 社會의 先鋒이 되야 理想的 社會의 創造者가 되자

예수교園遊會 聯合職員會主催

七月二十七日에 朝鮮예수교聯合職員會主催로 園遊會를 市外大德山(압산꼭대기)에서 開催하고 職員及信徒數百名이 모혀서 將來敎會發展策을 議論하며 一日의 소창을 한 後 午後七時頃에 돌아갓다 더라(大邱)

赤露救金分配 慶南蔚山에서

慶南蔚山郡東面에 잇는 五月青年同盟에서는 昨年의 水害를 當한 우리 民族에게 赤露無產民衆이 衷心으로 送付한 多大한 金額中 過般蔚山郡青年聯盟을 經由하야 來到한 救濟金十圓과 이에 感激한 地方有志의 寄附八十圓 合計九十圓으로써 白米를 買入하야 二十四日에 饑饉同胞五十二人에게 各五升式 東面三所米店에서 分配하엿는데 救濟를 바든 同胞는 勿論 一般人士들도 그 感謝함을 말지아니한다 더라(蔚山)

關西記者團 宣川에서 定總

旣報와 如히 關西記者團第一回定期會는 當地基督敎青年會館內에서 臨時議長金公善氏司會下에 二十七日下午 十餘名의 會員으로 一時부터 同五時까지 여러 가지 事項을 無事進行하엿스며 委員을 改選한 結果 左와 如히 被選되엿다 더라(宣川)

鄭隱瑾、金秉杰、金公善、金正連、李泰建、玄奎弘、李泳贊、金福寬、金商說、金道贊

同盟! 咸北大衆運動者 發起人選擧

咸北에 잇서서 今것 解放運動者로서의 統一的機關이 업슴을 有志한 同志로서는 누구를 勿論하고 遺憾으로 녀기던 바 去卅四日午前十二時에 鏡城青年會館에 數十同志가 모여 大衆運動者同盟을 發起하엿는데 創立大會는 八月十三日이라 하며 創立準備臨時事務所는 鏡城青年會館에 두기로 하고 同委員으로는 孟斗恩 張昌一 兩君을 選定하엿다 더라

◇發起人
孟斗恩 金河晶 尹錫弼 金榮秀 韓澤祐 金活 李巖夏 金昌元 姜鶴秉 李英華 李範秀 文鉉 車哲淳 鄭在勳 呂水 金三龍 崔昌楨 金在

◇大會時日及場所
一、時日 八月十三日午後八時
一、場所 鏡城青年會館內

勞青發起總會 松汀里에서

湖南線松汀里李湘根 朴夏善 韓命求 宋東順 趙觀衡 諸氏의 努力한 結果 同志百餘名을 募集하야 松汀勞働夜學青年會를 創立하게 되야 지난 二十五日午後八時에 松汀勞働夜學院內에서 創立發起總會를 開하고 松汀青年會創立에 對한 諸般準備事項을 決議하고 三十一日에 松汀合同勞働組合會館內에서 創立總會를 열리라더라(光州)

龍井女青 局子街에서 盛況 夏期巡講

間島龍井女子青年會夏期巡講隊는 第一着으로 去六月二十二日 局子街에 到着하얏는데 當地男女青年會同友會各團體後援下에 同日午後八時부터 局子街青年會館內에서 開催하엿다는데 四方으로 雲集하는 聽衆은 五六百名에 達하엿스며 日中兩國警官의 嚴重히 警戒하는 가운데 李東山氏의 司會로 開會하고 李信愛孃의 獨唱이 잇슨 後 各士는 次第로 登壇하야 大盛況을 일으고 同十一時에 散會하엿다는데 演士及演題는 다음과 갓다고

△푸로女性의 覺悟 陳奎女史
△民衆의 要求와 先覺者의 使命 李信愛孃
△살 運動 李順姬孃
△現代女性運動의 使命 馬淑慶孃
△나로본 女性運動 朱貞媛孃 (局子街)

元山青年委員會

元山青年會에서는 지난 二十五日下午八時부터 執行委員會를 同會樓上에서 開하고 從來同會에서 經營하든 東亞日報元山支局을 今後부터 東亞本社에 直營으로 하게 保證金五百圓을 現金으로 밧게 하고 同會執行委員中一人은 同報元山支局記者로 永久採用할 件과 同會革新의 際에 對한 件과 其他事項을 協議하얏다고(元山)

元山埋築地拂下

元山埋築地二百六十九坪의 拂下를 希望하는 者는 오는 三十一日午前十時까지 元山府南山洞埋築事務所에 集合하야 實地를 視察하고 나서 오는 八月四日午前十時 元山府廳에서 入札을 開始할 터이라더라(元山)

公州의 慘澹한 水害와 罹災民救濟會 一般의 同情을 바란다

忠南公州郡寺谷面에 今般大洪水로 因하야 慘死者가 近二十名에 達하며 家屋及田畓其他農作物等을 半數以上을 流失하고 數百同胞가 饑寒에 울며 道路에 彷徨하는 現狀이라 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去二十六日 同面有志李衆德 崔基鎬 金瓚鎬 山下鐵五郎 金光鉉 朴基斗 鮮于煥 高光翊 徐廷愚 柳彰會 柳錫範 許倫 李萬宗氏等의 發起로 臨時水害救濟會를 創立하고 目下救濟에 努力하는 中이바 눈물과 피가 잇는 同胞의 熱烈한 同情을 바란다 더라

咸北記者大會 鏡城에서 開催

咸北記者同盟에서는 오는 八月十四五兩日間 鏡城青年會館內에서 臨時記者大會를 開催하기로 決議하고 諸般準備에 奔忙中이라는 바 咸北同職者의 多數參加를 바란다 고(朱乙)

平原學友會의 地方巡迴講演 八月四日부터

旣報=平原學友會에서는 夏期休暇를 利用하야 巡迴講演과 各種演技를 開催한다 함은 이미 本報에 報道한 바와 如하거니와 其間 演士의 關係로 未定中에 잇던 地方巡迴講演은 同委員會에서 決定되얏는데 時日及場所 演士 演題는 左와 如하며 八月四日부터 各地方을 巡迴하리라는바 該地方團體에서는 極力後援하야주기를 바란다 더라

▲演題 敎育과 產業發展에 對하야

第一隊 ▲演士 金秉寬 金元鎬 ▲時日及場所 八月四日朝雲面 五日海巖面 六日青山面 七日鷲池面

第二隊 ▲演士 元一常 金貞七 ▲時日及場所 八月四日東松面 五日檢山面 六日石岩面 七日東頭面

第三隊 ▲演士 盧元贊 鄭在允 ▲時日及場所 八月四日漢川浦 五日永柔面 六日公平面 七日順安面 (平原)

松汀合同勞組 發會式中止 警察의 高壓으로

湖南線松汀里松汀合同勞働組合에서는 千辛萬苦하야 建築中에 잇는 會館이 竣工되얏슴으로 本月十五日流頭에 落成式及發會式을 擧行하기로 하얏던바 諸般準備上關係로 來本月二十日로 延期하고 모든 것을 準備中 去二十四日에 各友誼團體에게 案內狀을 發送하얏든바 消息을 드른 光州警察署에서는 무슨 不穩한 傳文이나 發送하엿는가 하야 各郵便局所로 電話하야 發送當日에 押收하고 松汀駐在所에서는 松汀合同勞働組合幹部를 呼出하야 落成式, 發會式을 延期함이 如何한가 함으로 勞組幹部는 諸般準備가 完成된 此際에 延期는 不能이라 한 즉 駐在所長은 本署又는 警察部의 意見을 合한 後에 通知하겟스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午後六時頃에 幹部를 更히 呼出하야 駐在所長의 말이 本署及警察部의 意見이 時期가 時期이며 只今은 各方面의 事情을 보아 不可한 줄 認하며 萬一 貴組合에서 期於히 式을 擧行한다 하면 不得已 中止命令하겟노라는 通知가 왓스니 延期함이 可하다 함으로 勞組에서는 警察의 高壓에 不得已 延期하엿다 더라(松汀里)

林啄

投稿規定 十四字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頻頻한 宣敎師의 蠻行에 對하야

◇去番順安許時候事件에 對하야 社會輿論이 沸騰하야 아직 그 終結을 보지 못한 이 째에 또 宣川某國某宣敎師의 蠻行事件이 發生하니 筆者는 이 어수선한 社會相의 事實的 一端을 봄에 當하야 無限한 憤慨와 痛恨의 情을 不堪하는 同時에 賢明한 信者諸君으로 하야금 그리고 覺醒함에 秋毫의 助라도 될가 하야 두어마듸 써 보려 한다

◇大抵 엇던 宗敎를 勿論하고 中에도 基督敎의 그 根本由來가 多端複雜하고 變遷無比함에 따라 均一的 精神을 갓지 못한 것은 事實이 證明하고 잇는 바이다 이 事實은 또 敎團의 事情과 또는 新面의 關係等으로 돈 것이 許諾치 안키로 達하는 바이나마 눈을 덥우지 못한다 그러나 大體로 口實을 博愛、慈悲、救濟等美名佳語로 다시 말하면 社會에서 唯心的 所謂 神聖한 使命을 가지고 잇는 것이라 한다

◇普通사람으로 良心이 잇는 사람은 아니 精神異常만 生起지 안는 사람이면 敢히 그러한 言行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聖經에 남을 救濟하라는 愛人如己하라는 兄弟더러 미치다 하지 말나는 句節이 만히 씨여 잇다 貧者 가남의 나라에 宣敎師다는 重大한 責任을 가지고 왓슴에 不拘하고 救濟는 姑捨하고 勞働力을 팔어 相當한 報酬를 要求하는 이에게 對하야 『文明한 일에』 野蠻人... 은 關係할 것 업다』는 侮辱的 言辭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半萬年 文明한 歷史를 가젓스며 禮義東方의 民族이라는 名譽까지 가젓다 한다 우리로서 그러한 言辭를 들을 거청업시만 하엿다 한다 그는 資本이 第一만흔 나라사람이다 金錢으로써 能히 우리를 侮蔑을 주엇다 하며 全民族的으로 文明한 國民이 아니라면 그야 말로 野蠻의 甚한 者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大衆이 勞働力을 팔어 相當한 報酬를 要求하는 데 對하야 宣敎師라는 그가 無理하게도 文明人 野蠻人을 말하얏다 한다 무엇이 文明이며 무엇이 野蠻인지? 나는 讀者의 批判에 맛겨 버린다 그리고 信者諸君! 明哲한 判斷도 實明한 知識도 잇서 社會의 輿論을 洞察하야 速히 善處하기 바라며 今後로 이 그런 無知沒覺한 行爲가 繼續되지 안케 하기를 切實付託하는 바이다 (平壤青棕)

如何를 注目하는 中이라더라 (開城)

槐山一境의 慘狀 流失家屋二百餘 八百生靈을 將奈何 ◇…忠北水害後報

忠北槐山地方에는 二十一日午後六時頃부터 쏘다지는 비로 因하야 槐山一帶가 水國化하고 마럿는데 槐山市場뒤 堤防이 崩壞되는 卽時에 邑內全部가 물속에 잠기고 二百餘戶가 流失되자 四百餘戶가 全部浸水되엿슴은 警官의 嚴重한 警戒로 다행이 生命에는 關係가 無하엿스나 부근 일대는 全滅狀態에 빠지엿다 하며 八百餘名의 住民들은 郡廳과 兩廳의 救護로 生命만 근근히 유지하는 중 嗚咽한 痛哭聲은 天地를 뒤집는듯 今番洪水는 槐山有史以來初有의 大洪水라더라(淸安)

山岳崩壞 慘死者十餘名

二十一日深夜子正부터 운 洪水에 全滅된 田畓과 流失된 家産其他는 아즉 未詳하며 沙梨面水岩里에서는 山岳이 崩壞되여 一家族九名이 참혹히 壓死되엿고 同里에서 또 一家屋이 漂流되는 同時에 四名의 一家族이 沒死하얏다 하며 淸安面孝根里에서도 山岳의 崩壞로 三人이 壓死되고 同面釣川里에서도 家屋이 顚覆되여 男女三人이 참혹히 壓死되얏다 더라

忠北線不通

去二十一日洪水에 線路가 崩壞되여 方今修理中 來八月五日頃에나 開通되리라고(淸安)

避難民에게 事食供給 道當局에서

八百餘名 避難民의 食事는 有志들의 寄附로 生命을 救護하든 中 忠北道當局으로서 滿洲粟六十俵와 醬油十二樽을 去二十五日에 輸送하엿다 더라

莞島少年團委員會

全南莞島郡所安少年團委員會를 去廿一日에 所安學校內에서 開催하고 全莞島郡으로 開催되는 少年庭球大會及雄辯大會에 參加할 것을 討議하고 總會召集할 것을 計劃하얏다 더라(長興)

夏期兒童聖經學院

慶山邑夏期兒童聖經學院開學式은 本月二十五日午後八時에 當地三北洞禮拜堂에서 擧行하엿다는데 金萬陽氏의 開會辭와 安泰仁氏의 聖經朗讀과 廉相燮氏童話와 金奉順 金道順孃의 合唱과 金道深女生徒의 獨唱이 잇슨 後 徐圭錫君의 맨도링과 徐圭鐸君의 露西亞빤쓰와 徐自岩君의 하모니가로 大盛況을 이루고 同十時頃에 無事閉會하엿다고(慶山)

莞島에 農民團 規約까지 通過

全南莞島郡所安面小珍里에서는 一般農民이 會集하야 月前부터 宿題로 잇던 農民團을 組織하고 規約及綱領을 通過하고 無事히 閉會하얏다더라(長興)

配達青年委員會

全南莞島郡所安面배달青年委員會를 去廿一日에 申光熙氏司會下에 開催하고 部門擔任과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고(長興)

◇部門擔任
庶務部 申光熙 金南斗 文昫激
敎養部 申具熙 金長安 李長伯
社會部 朱彩道 魏京永
常務部 申光熙 朱彩道 申具熙

『碧瀾渡渡船業을 面營으로 하라』 不平만흔 面民들은 ◇…道知事에게 陳情

開城郡西面에 잇는 碧瀾渡는 黃海京畿兩道를 境界로 하고 其間에 掛流하는 禮成江에 處한 大浦口로써 恒常交通이 不絕하고 重要地임에 不拘하고 其處에서 海上運絡을 作하야 주는 渡船業을 經營하는 者는 一個商人에게 獨斷權을 주어 公衆의 交通을 爲하는 誠意는 少毫도 無하고 全혀 自己의 營利만 圖謀하야 時代에 不適한 舊式木船을 渡船으로 使用할 뿐 外라 其他 諸般設備가 不充分하야 一般船客의 不平이 多大함은 勿論 一般面民外지도 如此히 重要한 交通機關을 一個人의 營利를 圖謀하는 機關으로 放任하야 둔다고 輿論이 紛紛하든바 去七月十二日에는 同面面協議員一同이 發起가 되여 各里區長과 一般有志等 一百五十餘名이 結束되여 碧瀾渡船營業을 所管하는 當局者인 黃海道知事에게 速히 面營으로 하라고 一百五十餘名이 連名捺印한 長文의 嘆願書를 二十五日附로 提出하고 一般面民은 今後當局者의 處置

寸鐵◇

【元山】 一萬五千圓豫算의 元山公設運動場은 日人村一隅에 設置한다지? 차라리 元山이란 字를 빼고 日人公設運動場이라고 하는 것이 名實相副가 아닐가

【鏡城】 咸鏡線朱乙地方巡查 날이들은 汽車에 洋服한 손님만 보면 엄버노코 調查한다나? 洋服이 何罪!

【錦山】 錦山、大田間道路는 每年洪水로 因하야 交通杜絕이 常習이 다고 郡當局者! 考慮할 必要가 업슬가?

社告

一、支局의 名稱 咸興支局
一、支局의 位置 咸興郡大和町
一、支局長氏名 尹柱

右와 如히 咸興支局을 變更하얏사오니 僉位는 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社 白

一、支局의 名稱 長淵支局
一、支局의 位置 長淵郡邑內
一、支局長氏名 崔載淳

右와 如히 長淵支局을 變更하얏사오니 僉位는 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社 白

今般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얏사오니 僉位는 以此照亮하소서

總務兼會計 朴九燮 記者 李英夏 記者 李泰信 記者 許益 記者 朴元燮

記者 金奎善 記者 崔元稷 寫眞班 金時益 顧問 朴鳳淳 顧問 朴相嵩 顧問 李忠夏 顧問 吳圭瑞

朝鮮日報長淵支局 白

今般枇峴支局長申鳳祥氏는 事情에 依하야 辭任하얏기로 其後任支局長을 李成根氏로 選定하야 諸般事務를 繼續處理케 하오니 僉位는 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社 白

今般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얏사오니 僉位는 以此照亮하소서

總務兼記者 辛聆根 集金員 金判權

朝鮮日報苗浦支局

第四回平北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三日(雨天順延)
場所 鐵山公普校코-트
申請期日 八月二日까지
申請場所 鐵山基督敎青年會事務所
參加金 每組金一圓
抽籤 八月三日午前八時(於同會館)
賞品 優勝旗와賞金五圓(但優勝旗는三年連勝組에게永久授與)
主催 鐵山基督敎青年會
後援 東亞、每申、朝鮮三社分局

第四回西朝鮮庭球大會

時日 八月十三日十四日兩日
場所 南市公立普通學校코-트
申請場所 南市俱樂部
申請期日 八月十二日까지
參加金 (三組一圓) 三圓
參加資格 青年組와學生의區別이無함
賞品 優勝旗外賞品을授與함
抽籤 八月十三日午前十一時
主催 南市青年會
後援 東亞日報、朝鮮日報南市分局

南朝鮮庭球雄辯兩大會

雄辯部
大會時日 八月二日午後八時半
大會場所 蔚山青年會
申請期日 七月三十日까지
申請場所 朝鮮日報蔚山支局
參加資格 少年側十八歲以上 青年側十八歲以上

庭球部
大會時日 八月一、二兩日開
大會場所 蔚山公普校코-트
賞品 優勝旗外賞
參加金 三組一圓
申請期日場所는 雄辯部와同一함
後援 蔚山青年會、東亞支局、佛教少年會、鶴城少年團
主催 朝鮮日報蔚山支局

第四回全金海蹴球大會

時日 七月三十一日八月一日兩日間(雨天順延)
場所 金海私立合成學校運動場
申請場所 金海青年會館內
申請期日 七月二十九日午後六時까지
抽籤期日 七月三十一日午前八時半
主催 在京金海學友會
後援 金海青年會·朝鮮日報社金海支局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hursday, July 29th, 1926.

A CHINESE RULER RUNS AWAY
By RAYNA RAPHAELSON

III

STRANGE NOISES

A trusted follower of Tuan supervised the building operations, and while construction was going on he noted curious hollow-sounding places where men were at work. He said nothing, but thereafter kept an even more careful eye upon the building. When the great place was finished Tuan's lieutenant told him of the strange noises. The old man, wise in the ancient ways of his country, cocked an attentive ear. Together they removed the flooring in one of the buildings over a hollow-sounding spot. They excavated, and found, directly under the palace, a maze of underground chambers and passage-ways leading far from the palace grounds.

In the late afternoon of April 9, word was brought to Tuan that unexplained troops movements were going forward throughout the East City. The old man set down his opium pipe and meditated. He knew there had been high feeling against him ever since the student shootings of March 18, for which he was generally blamed. He knew that the Nationalist army was desperate, with the "enemy" almost at the capital.

英文欄

段祺瑞의 逃走 (三)

涼味萬斛의 絶勝차자 消夏探勝團今夜出發

아름답고장려한도처의승경은 時一時團員을苦待中

본사주최소하탐승단(消夏探勝團)이『깃봄의터』삼방(三防) 석왕사(釋王寺) 원산(元山)을향하야 집겁게 떠날때도 이제압흐로 반일이남지못하얏다 자못의시은하락구텬(疑是銀河落九天)의감이잇는 웅장한삼방폭포 방울방울이새생명(生命)을자아내는듯한 삼방의약수포(藥水浦)을올한 창림(蒼林)과 뛰어난 절승(絶勝)은 비길데업고옛날을그립게 하야 나그네 회포를자아내는석왕사(釋王寺)의 경개십리명사(明沙)의해당화(海棠花)이슬먹고 표요한 창파(蒼波)에돗대가시처가며 창송(蒼松) 욱어진곳에 바다를굿업시 이어염뎐의터위조차엿각(永樓)에, 재미잇는 자맥질에긴해를맛십게 보낼원산(元山)동의아름답고상쾌함이견줄바업는탐승풍경을차자 억개바람처가며수백명단원이한식구되여옷고노래불러흥겹게떠날그때도 이미미구에 닥처왓나

알ㄱ진일긔가 벼엽시 비를모라 오래전부터 아름다운땅에 잠겨 닥처올 이날의깃봄을 웃는만흔 단원의 흥취를앗트림이 누구나 애닯어 걱뎡바업스나 작금의텬후를보아 우리의 이큰깃봄을앗두들님텬더가잇슬만큼 큰비는 업슬것을 측후소(測候所)원은 반갑게 뎐하야주며 한층 우리가 밟을 곳곳의 절경(絶景)은 비온뒤의 그경치가 더욱아름다워 보는자의 흥취를 도둘 이 또한큰바잇다함은 오히려비만개이면그만큼우리단원의행복이 느렷다할것여니 한가지깃뻐할일이요 일변으로 태조고황데(太祖高皇帝)의창업(創業)과 인연깁흔 석왕사에잇서 고ㅅ종효황데 백일제(百日祭)를장엄하게 경건히거행하는 엇더엄숙한 광경을 배관할수잇는것 역시우리소하탐승단원의한큰자랑거리가 될것이다

參加申請‖今日正午까지 集合時間‖午後十時까지 變更事實‖夕刊에發表

탐승단(探勝團)의 력사가 잇슨이후 그류례를보지못할만큼 와른시일에 탐승의내용이 섭부장려(壯麗)하야 일반사람이 압흘다토아 속속참가를하는 조선려행안내사(朝鮮旅行案內社)와 본사주최의 경원선(京元線) 곡면 소하탐승단이 금야에출발한다함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한번이탐승단의소식이세간에 뎐파되자마자만도의인긔는몰론 갓가운군부(郡部)디방의인긔까지비등되야 시각이 지남사록참가신청자는 그수효가 붓적붓적 놉기시작하야 이미뎡원에 갓가운수효를 보히기에 이르럿스나 일륙이 신청긔한을 금이십구일 정오까지 발표한관계상 부득이 그때까지는 신청을 접수할터인데 신청접수시각에 이르지안트라도 신청자가 뎡원에만달하면 곳신청을 사절하게 될것인즉일반인사는 특히이뎜을 주의하힘이며 금야출발시간은 오후열시오십분임으로 느저도 열시까지에는 경성역(京城驛)에 집합할일인바 기타 각개인의 려행상준비(旅行上準備)에도루탐탁이업시만반 정돈할을바라는 더로 출발컨에만원이되 사실이변경되는바잇스면 금일석간(夕刊)본지에 자세히 보도할것인즉 단원제위는 또한금일 본지석간에특별히주의하기를바라는바이라

海州霖雨

해주에는 칠월십이일래 여차장우(霖雨)로 모를다 내엿는데 농가에서는례년에비하야다행히시긔도과히늣지 안케되엿섯승으로 겨우 수미를 펴게되엿섯는데 그후비는 오는둣마는둣이 지난십구일과 이십일, 이십이일의사흘동안 겨우해빗을 보히엿슬뿐이요 비는다시 금여전히 오는둣마는둣이 계속됨으로도오히려잡곡(雜穀)에는해가심하리라더라(해주)

無錢旅行으로 李君汶山通過

대판에서(大阪)부터 북경(北京)까지도보로 무전려행을목뎍하고 지금으로부터 약일개월전에 대판을떠난 리한(李漢)군은 이십사일에 경성을경유하야 이십오일 오전열한시에 북쪽을향하야 수십일간모진더위에고생을 한후수주파주영을드러서부터는무수한고통을맛기시작하여봉일천(奉日川)서문산까지불과삼십리미만을 다섯시간이상이 걸려서이십육일오전세시가량에문산(汶山)에도착되여 피곤한몸으로본보지국을 차저와서 지국에서쉬인후 괴로운몸을 억제하면서이십칠일 오후세시반경에 장단(長湍)을 향하고 출발하엿더라(문산)

學術講演會開催

演士는歸國中의留學生 이십구일밤개성에서 主催는松京學友會

개성(開城)사람으로 멀리 동경에 류학하는 학생들의친목긔관으로 조직되여잇는 송경학우회(松京學友會)에서는일반회원들이 녀름방학에 귀국한것을긔회로 오래간만에 일반시민을위하야 학술강연회(學術講演會)와납량회(納凉會)동화회(童話會)뎐람회(展覽會)등 여러가지 모임을 개최하야 일반 시민으로하야금 만흔위안을갓게 하고저 이래준비중이든바 그간에 예뎡하얏든 학술강연회는 만반의준비가 다정돈되여 칠월이십구일 하오여덜시반부터 시내남대문통중앙회관(中央會館) 대강당에서 고려청년회(高麗靑年會)와 및동아(東亞) 조선(朝鮮)두신문지국의 후원을바더가지고 개최하기로 결뎡되엿는데 당야에출연할 연사는 동회의특별회원가지를 합하야 모다여섯사람으로 그연뎨와 연사의씨명은 다음과가트며 그중에는 다년간독일(獨逸)화계에류학하고근일귀국한 김재은(金在殷)씨의 처녀연설도잇서 일반으로 하야금 만흔흥미와인긔를 가지게한다는데 특히당야에는 입장을일절무료로개방한다더라

未定 孔鎭泰
虛無思想의一考察 李瑄根
經濟自由와生存權 金善炯
藝術雜感 高漢承
歐羅巴所見 金在殷
工業敎育의絶對必要를論함 周利會
(개성)

學術參考코저 靈峰을踏破 공주사범학생이

충남공주(公州)에잇는공립사범학교(公立師範學校)특과이학년에 재학하는 덕해희(德海熙)군은 이번하긔휴가를 리용하야 디리(地理) 력사(歷史) 박물(博物)등의학술참고(學術參考)로 사십일의예뎡을가지고 령봉(靈峰)금강산(金剛山)까지 예뎡(豫定)하야이십륙일에 공주를 단여갓더라

上海東京兩故國訪問團

歡迎蹴球리그戰開幕

이십칠일오후세시휘문운동장에서

農業經濟硏究次로 李勳求學士渡米

미국에서류학할동안에는 本社通信員으로活動

재작년에 동경뎨국대학농학부농학과(東京帝國大學農學部農學科)를 우수한성적으로졸업한 리훈구(李勳求)씨는 그동안그곳공학하야오던농업경제학(農業經濟學)을일심연구하는 일변우리나라의농업경제방면에 대한여러가지공헌과 로력을만히드리워오든터인데 금번에 다시 그연구과목을 한층더 연구하기위하야 멀리 태평양(太平洋)을 건너 북미(北米)에류학하고자 오는팔월십구일 횡빈(橫濱)으로 포와(布哇)호놀루루와 상항(桑港)등을거처 그디방의 농업경제등을시찰하고목뎍디인『캔사쓰』주(州)『캔사쓰』농과대학연구과에 이르러 사개년간 데재연구할터이라는바 씨가미국에 데류하는 동안에는 다시본사의통신원(通信員)으로활동하야 먼나라의진긔한소식과 색다른 학문의 리로운소식을자조뎐하리라더라 (사진은리훈구씨)

沐浴타가溺死 령암군에서

전남령암군덕진면 김장수(全南靈岩郡德津面金昌洙)(二三)는 지난이십오일 오후네시경에 이번홍수가중만한 동군덕진교(同郡德津橋)아래에서 소(牛)의목욕을식힌후 자긔의목욕을하다가 세인물결에채이여 김흔곳으로 밀려들어간후 몸이한번 소솟다가는 아모그림자도 보이지 안흠으로 이를본 동리사람은 크게놀래여 몸밋흘 수색한결과 두시간이나 지낸후에 시톄를발견하엿다더라(목포)

同志拷問消息듯고 多數住民警察再襲

경종을란타하야동지를모은후 長野縣下民擾續發

과반래에 일본장야현하(長野縣下)에잇는 소요사건에대하야는 지난이십팔일이래로 련지안은니백여명의 검속자를내고 암뎐(岩田)파출소에서 하신(下神)경부보의손에 의하야 취됴를밧든류택일수(柳澤一秀)(三三)는계원의 악착포학한 고문을 견듸다못하야 이십팔일정오에일으러는휴대하고잇든 양도(洋刀)를 내여서 자긔의목을 세곳이나 찔러무참히도 자살을계획하야 방금생명이위독하디경에잇다는바이소문을들은주민들은경종(警鐘)을 란타하야 군중은파출소를 포위하고방금그형세가심히위험한디경에세처잇다더라(장야)

男便은出他 主婦는飮毒

시외고양군연희면아현북리(延禧面阿峴北里) 뎡련식(鄭連植)의처류씨(柳氏)(四三)라는녀자는 이십칠일 오후두시경에 자긔집에서 가성소다(苦性曹達)를 먹고 자살코자하는것을 이웃사람이발견하고즉시『세부란스』병원으로 보내며 응급치료중인데 생명이 위독하다는바 이제그내용을듯건데 류씨는지금으로부터 일년전에뎡련식(鄭連植)에게로후가(後嫁)를와서살든중 항상부부간에 금슬이업서 집안에 큰소리가 떠날때가업든중 이십사일에도 부부가쌈홈을 하고 난뭇해 류씨는어데인지갓다가 이십칠일에 돌아와서그와가티 음독을 한것인바그의남편 뎡련식도 싸온후에 어데로가서 이때까지 들어오지안앗는데아모도 업는집에서 음독을한것이라더라

警報‖(七月二十八日午後三時三十分仁川測候所發表)

風雨强 황해 平安北道、黃海道、京畿道、忠淸南道及各沿岸警戒를要함

牛賊을逮捕 리천경찰서에서

지나간음력 삼월십삼일에 리천군호법면 동산리(利川郡戶法面東山里) 백륙십번디 곽영수(郭永壽)의 집에서는 소(牛)한필을 일흔후 우금까지범인을수색하든중 지난이십륙일에 그동리 김금성(金今成)(二四)을 당디경찰서형사가 데포취됴중 이라는데 그사실을 들은즉 김금성은 야간에 주인이 잠든틈을엿보와 다든문을열고 드러가 오양간에 매인소를쓰을고 밤을도와 수원(水原)시장에가서 오십원에 매득한후경성방면에가잇다가온것을그와가티데포한것이라더라

늑대에물려서 六歲小兒가慘死

안악군에생긴참혹한일

황해도안악군룡순면(黃海道安岳郡龍順面)에『늑대』가 출몰하

수日

朝鮮團對高麗俱 東京軍對上海軍

午後三時부터 徽文運動場에서 雨天順延

歡迎蹴球리그戰

主催 中央基督敎靑年會·朝鮮日報社

觀覽料	
普通	三十錢
學生	二十錢

(第三日)

人身蛇頭의奇女兒

그생김생김이든지행동이 갈데올데업시완연한배암 平北龍川郡술장사딸

인신사두(人身蛇頭)의 긔형아가생겨낫다하면 말만드러도긔괴한일이라할것인데 평북룡천군읍동면쌍송동(平北龍川郡邑東面雙松洞) 륙십칠번디에서 술장사하는신중록(申重祿)의집에서어제로부터십사년전에생겨난일이엇섯는데최근에이르러서야비로소 그소문을알게됨을따라서 그생긴모양을이제야소개케되는바 그몸생김은사람과가타야 나히열네살이낫가몸은비교뎍발달된 모양가트나 머리는겨우두어살된보통어린아이의머리보다도 더작음은아니라 그생김생김이꼭배암의머리와흡사한대 항상작은눈을또록또록삷히며 혀를날름거리고다닐때에는머리와 몸을휘휘내여두루며 볼새업시다니는데 그때에가는 머리의리가놈들거리는것을볼때에는 누구나분명한배암의머리라고 아니할수업스며말ㄴ라고는 무엇이라고잉잉할뿐이오문내외에 출입하는거동은 마치배암이구멍에출입하는듯과흡사하며 아이들이라도 제수에만놀리면몸시힐란하는등 그모든긔거동작이틀림업는 배암의동작임으로린근에서는 그를『배암머리』라고까지 부른다는바이소문을들은 각처에서는구경군이 답지한다더라(양시)

悖子何其多

또아비를따린자가잇다 祖母는一時驚倒

지난이십칠일밤에 시내관훈동(寬勳洞)일백칠십번디 박경선(朴景善)의집에서는 데이박상렬(朴尙說)이가생겻다하야구경군이 예들지어 구경을하는바 밤으로 집안에서는 자식이아비를 따린다하는 부르지즘이 야반의정적을 깨트리고 울려나와원장의괴악한연극이연출되얏다는바 이제그 자세한내용을듯건데 마진사람은그집주인박경선이고따린자는그의아들되는박괴용(朴槐容)(三六)으로 그자는본래부터 주색에침윤(沈淪)하야돈을쓰고 몰아단임으로그의부친박경선은 항상그리지말라고타이름하야오든터이라는바 이날저녁에도 어듸서술이 몸시취해가지고 돌아와서외턱업시 별안간에 자긔아버지에게 돈이백원을 달다고함으로그의 아버지는 이를조흔말로거절하얏든바 그는소리를 벽력가티 질으며『자식을모르는이면재산은 하여무엇을 하느냐』고하며 날뛰는통에 그의할머니되는팔십이나된 로인이 이에놀다긔절하얏슴으로 즉시 부근덕제병원(德濟病院)의사원덕상(元德常)씨를청하야다가 강심제(强心劑)주사(注射)를하는등 청심환(淸心丸)을입에다가 가러넛는등 하야약한시간후에야소생(甦生)하엿다는바박괴선은즉시부근파출소순사가 이치하엿다는데그집은세공(金銀細工)을하는집인데 그통에진렬장(陳列場)이부서지는등심도요란하엿섯다하며 그의부친박경선은남이붓그러워 살수가업스니 시골로나 가겟다하야 그즉시로 이사할준비를한다더라

中國料理店에 愛妻를賣却

멋모르고팔리게된안해는 逃走타가畢竟被捉

지난이십사일오후 여섯시쯤 되여전북순창읍내 복흥거(全北淳昌邑內福興居)라는 요리집에서는밤을 사다가노흔녀자가 도망을하엿다고 야단법석을하며사방으로 차지러다니다가 전남담양(全南潭陽)가는길목에서잡어왓는데 그내용을 탐문한바에의하면 그녀자는 전남장성군북하면 성암리 박송재장녀박량임(全南長城郡北下面城岩里朴宗燮長女朴良任)이라는 당년십칠세라는녀자로 금년삼월에 전남담양군내남면 박영수(朴永壽)(三〇)라는남자와 결혼을 하엿든바 그 박영수는 리발(理髮)을 하는 사람으로 월여전부터 전북순창읍내 박연래리발관(全北淳昌邑內朴延來理髮館)에서 고용사리를 하든중 자긔에게인바 량임(朴良任)을뢰여가지고우동집에 우동을먹으러가자고 졸다서권긔 중국료리집에 다려다주고 돈륙십원을바다든후 그대로 도망한사실이라더라(순창)

技競運動

中學野球豫選

大朝主催全日本中等學校野球大會第六回朝鮮豫選은二十九日부터京城運動場에서열리인대第一回豫選의抽籤은다음과갓다

京城師範—仁川商業
大邱中學—崇實學校
元山中學—釜山中學
三十日(第二日)
徽文學校—釜山一商
龍山中學—京城中學

對朝鮮蹴球團 東京留生戰

昨紙夕刊續報

評 이예임은 相當한 五氣가 잇섯보엿다 朝鮮軍은 처음부터猛攻擊을開始하얏스며東京軍은뭇까지必死의努力을한것은그들의高尙한스포—츠맨십을發揮하게한다예임全體로보아東京前線이꽉弱하며김씨의神奇한技術은驚嘆을놀래엿다그러고뭇호로한가지더말해야할것은이번에觀衆이매우적은것이遺憾이엿다이것은우리朝鮮民衆이運動을얼마나슬거하는가그程度를表示하는것이다(失生)

朝鮮	位置	東京
[illegible]	G	[illegible]
[illegible]	RF	[illegible]
[illegible]	LF	[illegible]
[illegible]	RH	[illegible]
[illegible]	CH	[illegible]
[illegible]	LH	[illegible]
[illegible]	RW	[illegible]
[illegible]	RI	[illegible]
[illegible]	CF	[illegible]
[illegible]	LI	[illegible]
[illegible]	LW	[illegible]

學校當局에서 生徒에게退學勸告

퇴학식히지안켓다하야 무사해결된후에이르러 背信無義한이處置

긔보‖순종효황데(純宗孝皇帝) 승하당시조의를 표하기위하야 학생일동이 휴학근신하얏든것이 도화선이되여 가지고다되여 동맹휴학의 불상사를야긔한 해주고등보통학교(海州高等普通學校)는 학부형과청년회의알선으로 정학처분의 해제와희생자를내지안을것의 두 조건으로무사히 해결되고 마럿섯는데몃칠전학교당국자는 일단 퇴학을명령하얏던 홍재주(洪在周)외 멧사람에게 이번은자진하는 형식으로 가정의 형편운운의리유로써 퇴학원을 뎨출하라하엿슴으로 학부형은 학교측태도에 비상히 분개한다는데이제 화뎐교장(和田校長)의 말을 듯건데『그것은 맨처음퇴학명령을한때 이십일까지 여유를주고 그안에전학수속을하도록학생들의 편의를도와주엇스나긔한이 이미낫승에 불고하고 하등의 수속을 하지아니한고로 곳퇴학당한것으로 간주한것이나 그러나학교에서는 일시엇더한 동긔로그리하엿든퇴학을명하는것은 본인의압길을 죽이는것으로 이러한점을 고찰하야 학교는관대한태도로써 가정 형편에의하야 퇴학하겟다는리유로원서(願書)를 데출하고 휴학 동안에 전학(轉學)할곳을 구하라 하엿든것이며전학수속만되면학교는언제든지 재적학생(在籍學生)으로 간주하야 편의를도와주리라』고 말하더라(해주)

海州兩少年도 무전답파려행

해주청년회 소년부(海州靑年會少年部)원인 김정배(金貞培)(一七)외두사람은 전조선무전려행을목뎍삼고위선서선(西鮮)일대를답사하리라는데 이 세소년은 이십팔일에해주(海州)를출발하야청단(靑丹)을향하엿다더라(해주)

球界의偉觀일 今日의蹴球戰

폭죽을올리어알릴터 滿都人氣는이에集中

의 마지막으로 맛을 각칠데 삼일은 드듸여 금이십구일오후 세시부터열리게 되얏다 이날만 일우면(雨天) 일지라도경기를 하게될때에는 오후한시경에 폭죽을 세방노아서 일반에게알릴터이며 이십팔일오후한시반 부터두시사이에 세방을 노켓다든 것은 허가관계로 일반에게노아 알리지못한것을 지면으로 사과하는바이다

朝鮮蹴球團又勝

동경고려전은이대이 蹴球리그第二日經過

만도팬의 인긔를 극도로써으러오든 동경、상해、조선、고려등 네축구단련합축구리그전(聯合蹴球리그戰)의 이십칠일의경과는 긔보한바어니와 데이일인이십팔일도 행하기어려운 련후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고국을방문한 동포팀을 환영하고저하는의미로 더욱이 모혀든 군중은것까지 변함이업시 경기에 열중이되엿섯는데 이번 리그비단테련합축구리그전데이일은 이십팔일부터 시내계동 휘문운동장에서 동경류학생군대 고려군으로 동오후네시오분 리병학(李丙學)씨『레퍼리』로 열린바 이대이동뎜으로 량군승부를결하지못하얏고 다음에상해 류학생군대 조선군은 서병의(徐丙義)씨『레퍼리』로열린바상해군선전하얏스나전일의선수의 부상과 피곤바짓이잇슴에 반하야 조선축구단은 틈셀틈업는수비와 날렌공석으로 삼대령으로 조선축구단련승하니때는오후칠시이분이엇더라

개아미떼가 市街를襲擊

지난이십륙일 오후칠시경에괴산읍내(槐山邑內)에한조가량되는 개아미(蟻)떼가 [illegible] 가어데서부터인지몰려왓섯는데 그중에도데일심한곳은행(幸町)일대로안개와가티몰려오죽파뎡(竹坡町)으로부터고정당(高井堂)일대에 이르러 거리의도로(街路)는 물론 집안까지모다몰켜 사람들은 곤난을늣기며모다문을굿게닷고외출하엿든바 동네시경에는개미가 곳(窓)와입(口)으로들어가 통행이매우곤난하엿섯다는데 각호에서는천더부터두되 가갑게주어대며버리는일변각처에 롬를노로방비에노력하는등이다는데 오후아홉시경부터는조금식감하엿다더라(괴우현전보)

末路에드러스는 普天敎의內訌

간부와교도간에서로반목 나종에는교도를마구따려 治療費까닭에執行騷動

궁박한경제제가 갈사록 더욱심하야가는이때에 전북 정읍군립암면대흥리(全北井邑郡立岩面大興里)에근거를둔 보천교중앙본소에도 돈이잘 들어오지아니하야 보월십사일 오전십시경에 보천교중앙간부 김흥규(金洪奎)김정곤(金正坤)문정삼(文正三)등의집에서는강제집행을 밧게되엿다는데 그사실을 들으즉 보천교간부중의 한사람인 림상순(林相淳)의데사환으로 잇는 개신(改新)회원 [illegible] 교리가 너무나틀님이잇다하야 [illegible] 순외네사람이가중히엿 엿더니 [illegible] 반편이된 중원에도 그돈을주지 화해를 한후에는 [illegible] 세사람이 [illegible] 금년음이월말경에 지불하기로 하여주고 약속한백원은 선불하고 일천원을 시불하기로하야 본소에 돈이잘 들어오지아니하야 대흥리(大興里)에근거를 둔 보천교중앙 간부들은 종정원(總正院)에 반가서 [illegible] 두사람의집에잇는 동산을 전부차압하매 집행당한 각개인은불론이고 그림상순외 네사람을 잡어다가 무수 란타를하야 중상을당한다 섯사람은 [illegible] 또는상해죄로 전주디방법원 정읍지텽검사국에 고소를데기하엿슴으로 피고소인들의 생각에는 [illegible] 우리가 중앙간부 [illegible] 고소원을 [illegible] 사일에 [illegible] 량비락유한보복이리고공론이자자하다 더라(정읍)

중앙본부

에제출한 마동

飛行機重要部를 竊取하야賣却한者

일본군긔상중대문데라고

오시(吳市)시외광(廣)경찰서에서는 이십일일아침부터 광공창수위(廣工廠守衛)와협력하야 그날정오에 항공긔부(航空機部)직공원산남(原山男)(三二)외사명을 검거하야 방금극비밀리에 엄중한취됴를한다는바 사건의내용은 항공긔제작상에 가장중요한부분의 물품을 절취하야 대판과신호에잇는 모(某)상회의 손을거쳐서 모국(某國)에 매각하엿다는 사실이라하며 금속류(金屬類)만으로도이만원금액에나 달하는사건으로서 군긔상(軍機上)가장중대한사건으로 됴사한다는바 아즉도 더욱련루자가잇는듯하다더라(오항)

坑夫는副業 竊盜가本業 결국데포되여

황해도옹진군 동남면룡호리(甕津郡東南面龍湖里) 리상환(李尙煥)(三三)은 평남강서(江西)혹은강동(江東)으로탄광의광부생활을하면서『모두히네누사를 행하는 그자로도써 지난삼월경부터 간간히절도를행하엿고 지난십오일경에까지 평양부내에서도 역시양복 목면수갑등 전후이십사회를절도하든바 지난이십일 평양경찰서원의손에 데포되엿다더라(평양)

通帳僞造하야 典當하고 륙십원을편취

시내 현저동(峴底洞) 박영렬(朴永烈)(二〇)은 이십오번디 팔권을 입금한뎌금통장(貯金通帳)을 칠십오원으로 위조하고사십권을 사십오원으로 위조한것을비롯하야 위조수회에 수백원 위조한 뎌금통장을 뎐당포(典當舖)에잡히고 륙십여원을편취한사실이 판명되여 지난이십사일에 본뎡서(本町署)원이 검거하여 엄중한취됴를 하는중이라더라

自殺코저 식칼로목을찔른 海州의中國人

남행정사십오번디(海州南行町) 중국인석봉석(石鳳錫)(三三)은자긔방에잇든 식도로 목을찌르고 자살을 도모하다가 가티잇는사람이발견하고 곳도립병원(道立病院)에입원을식혀 응급수당을 한결과 생명은무사할듯 하다는데그가티 죽고저한것은 정신에 이상이생긴까닭이라더라(해주)

휘파람

함흥(咸興)에잇는모 신문지국(新聞支局)에서는독자위안(讀者慰安)을하고자 모극장(劇場)과 협의하고독자에게만 한하야할인권을발행하엿섯는데▲그곳경찰서에서는할인권으로을지를하다나▲그자식혀다는배울은또둘어볼만하지 처음에는 신문지국에말을 하다가 리문어떵치못하야 실패를하고▲다음에는 극장주인을 위협하도록하야 다시또신문지국과협의하고할인권을발행하면 극장을 폐업식히겟다고 하엿다나▲ 그래 함흥지국에서돌은 독자위안권도 발행치 못하는중이라고 ▲엇쟀든새사에 말성이만엇더이만치 함흥경찰서는 권벌한직권도 만흔모양이야......